

가톨릭의료인이 환자를 내 가족처럼 생각해 준다면...



안영

소설가 가톨릭문인회 회원
저서 '가을 그리고 산사',
아름다운 귀향 등

나이 가 들면서 요즈음은 전화를 받으면 기쁜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이 많다.

누구누구가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누구누구가 무슨 암으로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등. 암으로 투병 중이란 말이 감기로 앓고 있다는 말보다 더 자주 들린다면 과장일까.

나 역시 몇 년 전, 남편이 위암 선고를 받아 9개월 남짓 병원생활을 했었다.

암이 이웃집까지 덮쳐 와도 남의 일로만 여기다가 막상 당하고 보니 억장이 무너졌다. 청천벽력이란 말이 딱 맞았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프면 우선 가정 전체의 질서가 무너진다. 제각기 자기 시간표에 맞추어 살던 가족이 환자 중심으로 또 하나의 삶을 공유해야 하니 생활의 시간표가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남편이 아프면 아내는 똑같이 투병생활로 접어들어야만 한다.

그토록 큰 슬픔을 당하고 있는 가족에게 의료진이야말로 가장 의지하고 싶은 존재요, 사실상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다. 아니, 거의 하느님 같은 존재다. 그런데 막상 병원생활을 오래 하다보면 너무 고마워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분도 많지만, 더러는 환자와 그 가족의 입장을 너무나 몰라주는 것 같아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사람도 많다.

아침이면 담당의사가 대여섯 명의 후학들과 함께 회진을 돌며 지극히 형식적인 몇 마디를 물어본다. 그 다음은 궁금해 죽겠는 이 쪽의 사정이야 아랑곳없이 피잉 되짚어 나간다. 후학들도 그의 뒤를 따라 아무 표정도 없이 나가버린다. 정한 스케줄 따라 수십 병실을 돌아야 하는 그분 입장을 고려해서 단 한 마디 질문도 못하고 말지만 속마음이야 알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섭섭한 것은 또 있다. 담당의사가 이미 알려준 병세에 대해서, 레지던트들이 들어와 한 마디씩 되풀이한다. 좋은 말도 여러 번 반복하면 듣기가 거북한 것이거늘, 들어오는 전공의마다 환자를 대놓고 좋지 않은 병세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아무리 직업이라지만 전혀 여과도 없이 막말을 해 미리 겁을 주기도 한다.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고, 그로 인해 기가죽을 대로 죽은 환자에게 꼭 그렇게 강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의사인 딸도 아버지의 병실을 들락거리다가, 의사로서만 보던 시각을 환자가족으로서 보고 나니, 느낀 바가 참 많고 좋은 체험이 되었다는 것을 실토했었다. 의료진이 환자를 가까운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사실 인명을 재천이다. 현대의학이 놀라운 정도로 발전하여 인간 수명을 이십여 년 늘려

아침이면 담당의사가 대여섯 명의 후학들과 함께 회진을 돌며

지극히 형식적인 몇 마디를 물어본다.

그 다음은 궁금해 죽겠는 이 쪽의 사정이야 아랑곳없이 피잉 되짚어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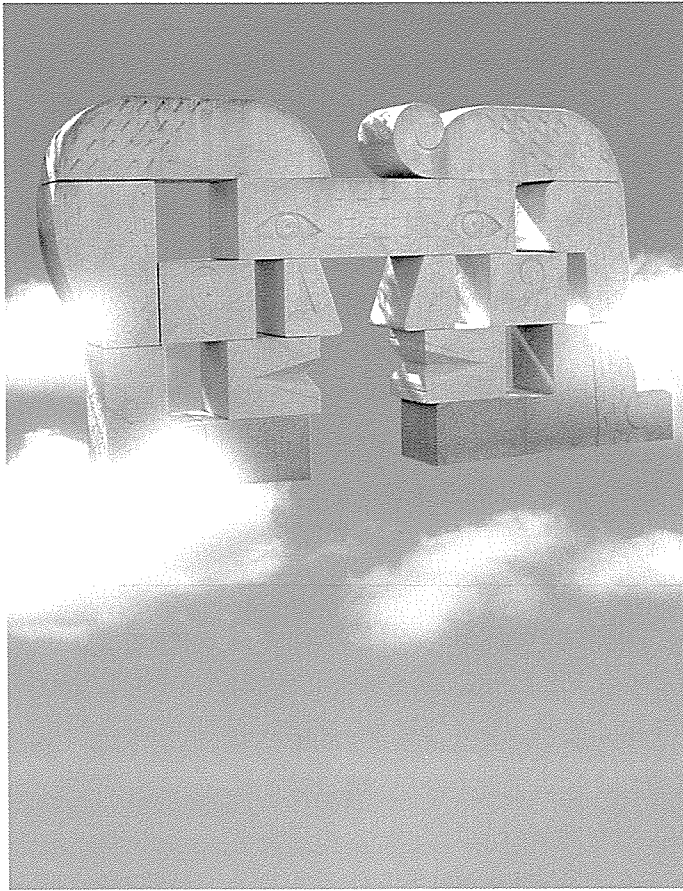
놓았다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생명을 관장하는 이는 누가 뭐래도 하느님이시다. 의료인들은 단지 하느님께 뿔뿔히 인간 건강을 돌보고 있는 한시적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참으로 겸손하게 정성을 다하여 환자를 대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주변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의료사고 소식을 접할 때이다.

수술 후 환자가 계속되는 통증을 못 견뎌 병원을 찾으니, 거즈나 호스, 심지어는 가위가 남아 있었는데는 끔찍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라식 수술의 경우도 그렇다. 적어도 한두 달 지속적으로 시력 체크를 한 뒤, 시술에 임해야 한다는 규칙을 깨고, 검사한 지 사오 일만에 졸속으로 시술한 나머지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게 된 경우도 많이 보았다. 그밖에 여성들의 허영을 부추긴 성형수술의 부작용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들이 환자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임한다면 과연 그런 실수가 자행될 것인지.

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 제발 의료



행위 전, 수술이나 진찰은 물론 비록 혈관주사 한 대 놓는 작은 행위 전에도 기도부터 드리고 시작해 달라고.

신앙 좋은 분들은 옛날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기도를 드리고 임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우선 심리상태가 다를 것이다. 어찌 의료행위뿐이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분명 결과가 다르리라 믿는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우리의 삶, 우주만물을

관장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큰 손'의 존재를 설사 신앙인이 아니라 해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경우, 더욱 겸손한 자세로 그분의 도우심에 의지하면서 신중한 진료, 실수 없는 수술을 이끌어 주시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제 때에 식사도 못하고, 잠도 설치면서 친절과 성실로 임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이 계시다. 그분들께는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이 글에 대한 양해도 바란다. 🐾